

고창군 동림저수지 통제 AI 차단 '총력'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박우정군수 조희현경찰청장 근무자 격려 철통방역 당부 농경지에 먹이줘 분산 방지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9일 동림저수지 출입통제초소는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림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5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

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5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벌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림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방제단, 흥덕농협 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림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 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 AI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박우정 고창군수와 조희연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일행은 9일 AI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창군 방역 초소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AI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동립저수지 출입통제 강화 박우정 군수·조희연 청장 초소현장 방문 직원 격려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일 박우정 군수와 조희연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립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벌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방제단, 흥덕농협 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립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 AI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전북청장은 출입통제소를 방문해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나는 날까지 출입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이 박우정 고창군수와 AI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된 동림저수지 일대 출입통제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고창 AI 확산 방지 출입통제소 점검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이 9일 AI 차단 출입통제소 현장점검을 위해 철재도래지로 알려진 고창 동림저수지를 방문했다.

이날 조 청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동림저수지 일대 출입통제소 4개소를 점검하면서 탐방객 등 외부출입 차단을 위해 설치된 출입통제소 설치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출입통제소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조희현 청장은 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축산 농가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번 사태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8일 AI 발생 이후 4개소 거점소독시설과 발생지 주변 이동통제소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산세로 인해 철재도래지 동림저수지 일대 출입통제소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l@

고창 동림저수지 AI 유입 차단 총력

박우정 군수·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 현장방문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9일 동림저수지 출입통제초소는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 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림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림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볍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 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림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 방제단, 흥덕농협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림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림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 AI 지역 유입 차단 '총력'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 박우정 군수·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 방문...철통방역 당부·격려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9일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는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립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벌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방제단, 흥덕농협 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립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

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 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 AI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군, AI 차단방역 · 조기종식 ‘만전’

박우정 군수·조희현 전북청장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 방문
철통방역 당부 · 직원 격려 등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9일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에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현재 동립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



지난 9일 고창군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를 방문한 박우정 군수(왼쪽)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왼쪽 두 번째)이 초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벌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방제단, 흥덕농협 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립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 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고창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동립저수지 AI 현장 방문 격려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연일 현장을 찾아 철통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9일 동립저수지 출입통제초소는 박우정 군수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AI확산 방지 출입통제와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와 조 청장은 이날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초소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현재 동립저수지 주요 출입구에 4개의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시 순찰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6개 초소를 추가하여 민·관·경 3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벌써 4톤을 5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해 철새의 분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 및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군 방제차량을 비롯해 축협 공동방제단, 흥덕농협광역방제기, 여곡 친환경 쌀생산단지 광역방제기 등을 총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도 지난 4일부터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 지원할 수 있도록 2인 1조 4명을 동립저수지 2개 초소에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동립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적으로 AI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차단 방역 조치사항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